

한국 발레의 새로운 가능성

박성혜 | 무용평론가



최근 한국발레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김현웅. 그를 처음 만난 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공연에서였다. 놀라운 것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가볍게 발레를 시작했고 난생 처음 잡아본 발레 바(Bar)가 고 3때였다는 점이다. 발레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가벼운 마음에 시작했던 철없고 내성적인 소년이 이제는 발레를 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 들고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한다. 이제 그는 한국 발레계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그녀는 발레를 전공했다. 하지만 그다지 내세울만한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발레를 계속 하기에는 작은 키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는 내내 그녀는 열심히 학업에 임했고 덕분에 장학금도 땀던 모범생이었다. 나중에는 대학에서 조교생활까지 하면서 발레에 대한 열정을 대신했다.

스승과 제자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자그마한 발레 학원을 차렸다. 마음이야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발레리나였겠지만 현실은 그런 그녀를 몰라주었기에 그녀가 선택한 차선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그 발레학원이라는 것이 은근히 걱정되었다. 그나마 돈이라도 좀 벌게 신도시나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곳에 차렸다면 오죽 좋았겠지만, 이 친구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몰라 자기가 살던 터인 서울 강북 산동네 옆에 발레학원 간판을 내걸었다. 왜 그런 멍한 짓을 했냐고 타박하면 의당, “그래도 내 동네가 편해서”란다.

그 후 몇 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잊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학원 발표회를 하는데 적당한 극장을 좀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무용학원 발표회라는 것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애들 재롱잔치 수준에, 관객이라야 학부모들이 전부이고 공연 내용은 더더욱 뻔한 그런 발표회이지만 정작 지도 교사들은 시간과 노력을 일반 공연의 몇 배가 드는 중노동에 그나마 이익도 없는, 소위말해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서비스성 이벤트 행사가 대부분이다. 그런 힘들고 손해 보는 짓을 왜하냐는 면박에 그 친구 대답은 이랬다.

“고등학교 재학생 남자애가 너무 잘하고 재능도 있는데 꼭 무대에 세워보고 싶어서”란다. 이쯤 되면 경험상 눈치 채는데, 간혹 만나는 선생들의 ‘눈에 뭐가 썩

운 경우’다. 소위말해 자기 제자에 자기가 반해 수강료 안 받는 건 기본이요, 학비 대주고 심지어 먹여주고 재워 주는 그런 접장질에 딱 걸린 게다. 무용계의 그런 속없는 선생들 몇몇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능력 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개가 진짜 눈에 뭐가 썩은 ‘제 눈에만 예쁜 제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자의 배신에 마음 고생하는 격이었거나 말이다. 이 중병이 걱정되어 우려의 몇 마디 건넸더니만 계속 이 친구, 자기 제자는 진짜 괜찮은 애요, 발레 안하면 아까운 애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니 공연 날 한번 와보라는 게다. “이 친구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먼”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극장 추천을 마친 후 형식적 인사 몇 마디 건네고 전화를 이내 끊었다.

그런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전화 통화 후 몇 년이 지난 국립발레단 공연장에서였다. 평범한 발레 학원 원장인 그녀가 한창 발레 레슨을 해야 하는 시간에 웬 일인가 싶었다. 이유인 즉 자기 제자가 오늘 데뷔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맡은 남자에 좀 눈여겨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그 남자 무용수는 환상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발레계의 모든 인사들과 관계자는 이 남자 무용수에 대한 등장에 흥분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하는 무용수라는 격찬에 한국 발레를 새롭게 이끌 것이라는 칭송으로 일팔하고 있었다.

공연 후, 로비에서 만난 친구에게 말했다. “너 제자 하나는 잘 키웠다.” “그렇지? 나는 그 아이가 우리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단니까. 그리고는 드는 생각은 ‘너는 발레 안하면 죄 받는다’였어.”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선생을 보았다. 그리고는 저런 제자를 둔 그녀가 무척이나 부럽다 못해 은근히 시샘이 났다. 그리고는 그런 제자를 위해 발표

회를 준비하고 자기 제자가 최선의 길을 가도록 노심 초사했던 모습들이 한 순간에 스쳤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래 맞다. 저런 애는 발레 안 시키면 죄 받는다. 그리고 너는 진짜 잘했다”라고 했다.

이 중병을 우연히 다시 만난 건 올 초에 있었던 로잔 콩쿠르에서였다. 행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선물을 고르다 콩쿠르 참가 학생들을 인솔했던 무용원의 김선희 교수를 만났다. 그녀는 열심히 시계를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비싼 시계는 아니었지만 소위말해 최신식의 젊은 감각의 시계라 누구에게 줄 것인지라 은근히 궁금해 졌다. 그 교수의 부군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자제들은 그만한 시계를 차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선희 교수는 슬쩍 웃으며 “남자 제자놈”이라고 했다. 이번 콩쿠르 참가자는 모두 여자 제자들뿐이었는데 말이다. 그렇게 해외에 나가도 꼭 챙기고 싶을 만큼 각별한 제자가 있다는 특별한 제자 사랑이 은근히 대단해 보이면서도 혼자 되새긴 말이 ‘진짜 눈에 뭐가 띄운 중병 중 중병’ 이었다.

그 ‘남자 제자’가 얼마 전 국내 최고의 콩쿠르인 동아무용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 수상자에게는 군대 면제 혜택이 있기에 해외 유명 콩쿠르보다 더 어렵다는 콩쿠르에서 말이다. 그리고 1등의 수상자의 주인공이 바로 ‘김현웅’이다. 지금은 국립발레단에 있으면서 주역 무용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눈치 챌겠지만 한 학생을 위해 극장을 빌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선생이 제자 선물을 먼저 챙기게끔 한 그 제자가 바로 김현웅이다. 선생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 김현웅에게는 그만한 특별함이 있기에 그녀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

사실 김현웅을 처음 만난 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공연에서였다. 김선희 안무의 〈인어공주〉였는데, 출연진보다도 일반인, 그중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안내에 호감이 가서 일부러 들린 경우였다. 그 무대에서 만난 것이 김현웅이었다. 당시 3학년 재학생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발레리노에게 필요한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진 무용수였다. 한국 발레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런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작년의 국립발레단에서였다. 그 동안 러시아에서 유학한 직후의 모습이였다. 확실히 달라진, 더욱 발전한 모습이였다. 사실 〈인어공주〉에서는 그의 가능성만 보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몸만 봤다. 동양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넘어선 천운을 타고난 행운아 발레리노로서 말이다. 그런데 그는 그 짧은 시간에 확연히 발전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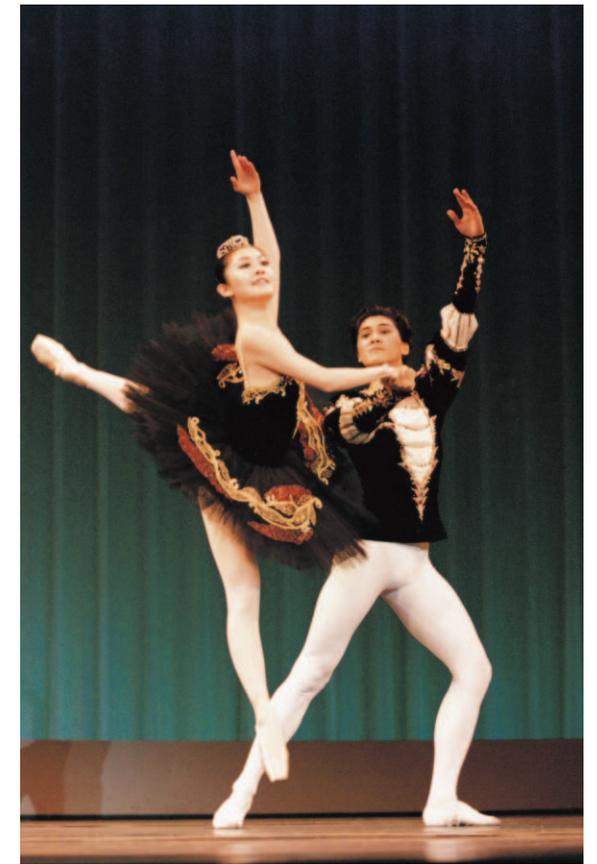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솔직히 의심이 많은 사람 인지라 어쩌다 한 무대에서 잘한 무용수에게 흔쾌히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인어공주〉는 작은 무대(토월극장)이었기에 발레 작품이 주로 올라가는 큰 무대에서는 다르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에서 춤추고 있는 김현웅은 이런 의심을 단숨에 날려 버리고 있었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무용수가 갖추어야 할 재능, 소위 말해 ‘끼’가 있는 무용수였다. 춤 잘 추고 싶은 욕망, 무대 위에서 자신의 탤런트 기질을 마냥 발산하고 있었다. 모델 못지않은 훌륭한 몸의 소유자인 무용수들을 많이 봐온지라,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여러 번 봐온지라 몸만 보고 속지 않겠다는 결단이 해제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 그를 실제로 만난 것은 이 글을 위해 잠시 만난 인터뷰에서였다. 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수영 선수 출신이라는 것, 뮤지컬 배우 김성기 씨가 작은 아버지이며 발레는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가볍게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무용수가 갖추어야 할 재능, 소위 말해 ‘끼’가 있는 무용수였다. 춤 잘 추고 싶은 욕망, 무대 위에서 자신의 탤런트 기질을 마냥 발산하고 있었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발레단의 〈해적〉 공연





사실은 난생 처음 잡아본 발레 바(Bar)가 고 3때였다는 점이다. 고 3때 발레를 시작해 무용원에 입학했다면 그것은 발레 레슨 몇 개월 만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다. 남자 무용수 귀하던 십 수 년 전의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이 2000년도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명문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말이다.

한국발레의 새로운 기대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주역으로 활동해 왔던 이원국을 이렇게 평한다. ‘고3 때 처음 발레를 시작한 사람’ ‘한국발레사는 이원국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말이다. 한국 남성발레의 신기원을 이룩한 이원국에 대한 찬사였다. 또 역설적이게도 발레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 했으면 늦은 거요, 그 늦은 공백은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메웠다는 간접화법의 칭송이었다.

그런데 이원국과 김현웅은 묘한 공통점이 많다. 고 3때 발레를 시작했다는 점, 동아 콩쿠르 우승자라는 점, 학생 신분으로 국립발레단 단원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원국이 데뷔했을 당시에는 발레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원국은 자신의 재능으로 한국발레의 스타로 자리매김했고 한국 발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발레단 은퇴를 염려했고 한국 발레가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의 김현웅을 보는 순간 우려 우려와 염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이원국의 빈 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현웅에게도 새로운 기대를 걸면서 욕심을 내 본다. 새로운 한국 발레의 도약을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발레를 시작해서도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리고 학원 발표회에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넘어져 끝내 관객들에게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가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성숙한 청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대로 짧은 경력과 경험이다. 너무 늦게 시작한 발레가 문제라는 것이다. 김현웅 자신도 아직 발레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옷 같다고 한다. 발레 동작들과 연기가 몸에 완전히 베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건 다행히 시간과 많은 연습량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레를 많이 할 수 있는 국립발레단 소속이다. 지금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춤추는 환경에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그 다음은 무대 경험이 적다는 것이다. 인터뷰 도중 김현웅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무대에 서면 그 긴장감 때문에 다리도 평소보다 낮게 들리고 식은땀이 난다”고. 사실 공연에 임하는 그를 볼 때면 이런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미숙한 춤,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져 무대에 내 동맹이쳐진 그 기분, 그리고 객석에서 전달되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할지 모르는 그 기분을 잘 안다. 하지만 이 역시 걱정이 안 된다. 그는 그 긴장감 속에서도 확실히 무대를 즐기고 있다. 남들의 시선이 좋고 무대에 나서는 순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 단지 경험이 적어 여유를 못 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콤플렉스가 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나의 몸”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자신의 몸을 높게 평가하기에 “나는 몸만

